

	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 걸 기 소 장
		일 시	2025. 1.

CEPA Insight

-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을 8% 목표..팜 민 찐 총리 신년사
- 베트남 ICT산업, 작년 두자릿수 성장..GDP기여 989조동(388.5억달러) 11.2%↑
- 베트남, '반도체·AI' R&D센터 초기투자 50% 지원...첨단산업 드라이브
- 한국기업, 베트남수출 현지 통관절차 혜택...양국 'AEO MRA' 체결

■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을 8% 목표..팜 민 찐 총리 신년사

- 베트남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목표를 최소 8%로 잡았음. 이는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경제성장률 목표 6.5~7%보다 높은 수준.
-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베트남은 올해 최소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내년부터 두 자릿수 성장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성장과 부와 문명, 번영의 시대로 이끌 혁신과 창의성, 가속화 등의 돌파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1월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 6.5~7%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전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음.
- 찐 총리는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약 7%, 경제 규모는 약 4,700억 달러로, 지역과 세계 많은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의 발전을 보였고,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평가.
- 찐 총리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약 3.6%로 안정세를 보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약 24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또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5.7%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경제적 자유지수는 176개국중 59위로 전년 대비 13계단 상승했음.
- 찐 총리는 “지난해 FDI(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과 집행액은 각각 400억 달러, 2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한 15대 개발도상국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밖에도 우리는 세계 주요경제국과 17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세계에서 가장 교역 규모가 큰 20대 경제권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평가.
- 그는 “베트남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의 유망 투자처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하는 등 디지털·녹색·첨단기술 및 친환경 경제로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찐 총리는 “법률적 병목현상, 번거로운 행정절차, 지역 간 개발격차 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노동력 개발 또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난해 목표에 이르지 못한 여러 지표를 지적하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삶을 개선해야 하며, 사람을 중심과 주체, 목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
- 찐 총리는 “올해는 향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성장을 가속화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동시에 전자정부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각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에 지시.
- 그는 이어 “올해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함께 주요경제 균형 보장을 우선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된 경제성장을 촉진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고속도로와 전국 항만 및 공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등의 주요 인프라 사업의 가속화를 촉구.
- 베트남은 올해 전국 고속도로망 3,000km와 해안도로 1,000km 완공을 주요 목표로 잡은 상태이며, 동시에 농업과 산업, 서비스 부문 확장과 함께 첨단기술 적용으로 국가 개발구조를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

- 이 밖에도 썬 총리는 ▲디지털 혁신 ▲고속련 인력양성 ▲부패방지 및 낭비방지 노력 강화 ▲세계화 및 국제통합 심화 등 주요 방향성을 강조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63>

■ 베트남 ICT산업, 작년 두자릿수 성장..GDP기여 989조동(388.5억달러) 11.2%↑

- 3일 베트남정부에 따르면 작년 ICT산업 총매출액은 3,880조동(약 1,524억 1,69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 이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산업 종사자도 약 154만명으로 2% 증가.
- 이에따라 ICT산업의 GDP 기여액 또한 989조 200억동(약 388억 5,140만 달러)으로 11.2% 증가.
- 그러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후 이익은 289조 700억동(약 113억 5,550만달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다만, 하드웨어 및 전자 제품 수출 회복은 ICT산업의 긍정적 전망을 기대.
- 앞서 2023년 1,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1% 감소했던 전자제품 수출은 지난해 1,323억 4,000만달러로 16.8% 증가하는 등 크게 반등하는 모습. 올해는 1,600억달러를 목표로 지정.
-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디지털기술 기업수는 전년동기 대비 16% 늘어난 5만 4,500여개로 집계.
- 정부는 올해 디지털기술 기업을 6만개로 확대해, 전체 ICT산업 매출을 전년 대비 11% 늘어난 4,320조동(약 1,697억 130만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74>

■ 베트남, '반도체·AI' R&D센터 초기투자 50% 지원...첨단산업 드라이브

- 베트남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AI 분야 R&D(연구개발)센터 투자 초기투자의 최대 50%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지원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시행령' '의정 182호(182/2024/ND-CP)'를 공포.
-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지원기금은 기획투자부가 관리하는 비영리 국가기금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재원은 중앙예산과 국내외 기관, 개인 및 기업의 후원금 등으로 운용되며, 재정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특히 시행령 가운데 제24~26조는 ▲초기투자비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지원 수준 등을 규정.
- 이 조항들을 종합하면, 반도체 및 AI 분야 기업 가운데 R&D센터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기금으로부터 초기 투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기업은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 당시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투자하는 R&D센터가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 또는 국가 혁신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
- 또한, 지원 대상 기업과 R&D센터는 과학기술법에 따라 과학기술단체로 설립·등록돼 있어야 하며, 개발목표 제품이 총리가 승인한 우선순위 하 이테크 분야에 해당해야 함. 재무요건으로는 최소 등록자본금 3조동(1억 1,780만여달러), 투자승인일로부터 3년내 최소 1조동(약 3,930만달러) 지출 등의 요건을 충족 해야함.
- 정부는 이밖에도 투자지원기금을 통해 기술기업들에 ▲교육 및 인재양성 ▲R&D 등 다양한 일반 지원을 펼칠 계획.
- 해당 시행령은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됐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

※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76>

■ 한국기업, 베트남 수출 현지 통관절차 혜택...양국 'AEO MRA'체결

- 한국기업이 베트남 수출시 수입검사를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및 수입화물 우선검사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게 됨.
-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지난 12월 24일 체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임.
- 양국간 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6월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추진돼 성사.
- 지난해 기준 베트남 수출액 535억달러 가운데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차지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일본·홍콩·대만·싱가폴·인도·호주·멕시코)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